



말씀(Logos)이 체현(體現)된 환경조각의 공동체성

‘사랑의 종’ 소리가 울리다

🕒 오의석

한 점의 조각 작품이 작가의 스튜디오와 미술관의 실내 공간을 떠나서 자연이나 도심의 환경 속에 자리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작품의 놓이는 현장의 물리적, 시각적 공간특성을 존중하며 어울림을 갖는 동시에 현장의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안에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경조각의 설치 장소는 대부분 사유공간이 아닌 공공성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미술관이나 갤러리의 공간처럼 전시작품을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아와 작품 앞에 서는 감상자들과 달리 환경작품의 감상자들은 그 길을 지나치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아닌가? 여기서 누구의 눈높이에 맞추어 작품을 구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작품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대중들이 접근하기에 어렵지 않고 다수의 공감을 얻으며 사랑받는 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환경조각은 대부분 많은 재료와 노동의 양이 소요되는 대형작업으로서 제작비를 제공하는 주문자의 다양한 요구가 있게 마련이며 그 요구를 수용하는 일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러한 환경조각의 제작 여건 속에서 말씀을 담아내려는 시도와 노력까지 더하려 든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그 어떤 작품보다도 위로부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환경작업인 것이다. 그래서 작품의 구상에

서부터 제작과 마지막 작품의 설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

더블유 존에 세워진 '사랑의 종' 탑 이야기

양평의 해피랜드 W-zone에 설치된 <153 사랑의 종>은 자연장의 추모의 종을 겸하기도 할 종탑으로 세 마리의 물고기 형상이 만나 삼위일체를 이룬다. 이 세 마리의 물고기가 교차하는 꼭대기 곧 종탑의 지붕은 무지



준공 시종식에서 작품설명 중인 작가, 2011. 5. 16일

153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렸을 때 잡은 고기의 숫자가 1530이다. 기적의 수이며 순종의 수이다. 하이패밀리는 양평 'W존'에 와서 종을 울릴 때마다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해 작은 기부를 함으로써 기적의 153마리 고기처럼 심장병 어린이에게 새 생명의 기적은 안겨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또 우리 민족의 신앙을 일깨운 새벽 종소리가 153개 미전도 종족들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하는 마음도 담았다. 153개 종류의 다른 방언으로 '사랑해'라고 새긴 까닭이 그것이다.

—하이패밀리 홈 페이지 송길원 대표의 글 '송요각' 2011. 5월 중에서—

개 빛 사랑의 형상인 '하트'가 놓였다. 물고기 형상의 사다리 구조물에는 153개의 크고 작은 스테인리스 종들이 매달렸다. 가장 높은 곳 가운데에는 강화도 마니산 기도원에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100년 된 종을 달았다. 종탑이 선 자리는 하이패밀리 양평 'W zone'의 기슭은 지리학적으로 공명이 큰 곳이어서 그 울림이 아름답고도 깊다. 종탑 바닥은 석조 계단이며, 153개 국가와 부족의 언어로 '사랑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 종이 울리면 그 소리가 '사랑해'라는 뜻을 담아 온 땅에 퍼져나갈 것을 소원하고 있다.

사랑, 공명, 일치, 소통이 작품을 이루는 실마리인 셈이다. 틈날 때 꼭 한 번 들려서 종을 울려 보기를 바란다. 온 누리에 나의 행복이 번져갈 것이다.

환경조각의 공동체성

작품 '사랑의 종'은 작품의 구상부터 많이 달랐다. 먼저 가족들의 아이디어가 작품에 많이 반영되었다. 일례로 작품의 뼈대를 이루는 물고기의 모양은 둘째 아이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었다. 가족 중에는 발품으로 도운이도 있다. 모형 제작에 필요한 작은 장식용 종을 구하기 위

물고기 형상의 사다리 구조물에는 153개의 크고 작은 스테인리스 종들이 매달렸는데 153개 국가와 부족의 언어로 '사랑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 종이 울리면 그 소리가 '사랑해'라는 뜻을 담은 땅에 퍼져나갈 것을 소원하고 있다. 사랑, 공명, 일치, 소통이 작품을 이루는 실마리인 셈이다.

해 아내는 대구 서문시장을 누비고 다녔다. '사랑해'라는 단어를 153개의 다민족 언어로 찾기 위해서는 GBT의 도움을 구했다. 계획안과 모형이 확정된 후 실제 작품의 확대 제작에는 여러 협력 업체의 도움이 필요했다. 금속 구조체를 제작한 새시대 스튜디오, 석 좌대와 각자를 담당한 석예석재, 종탑지붕의 색유리 작업을 도운 HK 스테인글래스가 주요 협력 업체였고 업체들은 작업의 여러 부분들을 또 다른 많은 업체에 도움을 구해야 했다. 새시대 스튜디오 노동자 중에는 북에서 온 새터민도 있었고, 또 몽골에서 온 한 청년이 있었다. 작품설치의 현장에서 '사랑해'란 단어가 자신이 조국인 몽골어로 새겨진 것을 보고 좋아하던 모습, 그리고 인접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언어를 찾아내어 읽으며 자랑스러워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그들의 땀과 수고를 빌리지 않았다면 결코 완성할 수 없는 어려운 작품이었다.

20세기 현대 추상조각의 거장 브랑쿠시는 조각가와 조각가의 작업을 두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정신은 황제처럼 군림하고 육체는 노예처럼 일한다' 조각

이 지닌 정신성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노동성을 강조한 말이다. 사랑의 종탑이 대형작품이기 때문에 피해 갈 수 없는 그 많은 노동의 짐을 덜어준 협력 업체와 수고한 작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흔히 작품이 작가의 손을 떠나면 작가의 작품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다. 공공성을 가진 환경작품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사랑의 종을 완성한 후 표제석에는 제작한 조각가의 이름을 새겼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이 작품은 제작한 작가만의 작품이라 할 수 없다. 먼저 작품제작비를 후원한 수많은 기부자들의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는 선대 어른의 유산을 제작비로 드린 한 집안 형제자매들이 있다. 사랑의 종은 작품의 제작을 도우며 땀흘린 수많은 손길들과의 공동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작품을 찾아서 종을 울리며 행복해 할 많은 감상자와 방문자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환경조각은 구상과 제작과 완성 후의 사용에 있어서까지 공동체적 성격을 가진다. '사랑의 종'이 한 조각가의 작품에 머물지 않고 우리 모두의 작품으로서 사랑받기를 기대하는 이유이다.



오익석 조각가, 서울대 미대 조소과와 동 대학원을 나와 대구가톨릭대 조형예술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동대학 MF 지도 교수로도 섬기고 있다. 개인전 17회(서울, 대구, 부산, 제주, 횡트웨인, 연길, 아체), 메사이어대학 초대 조각 2인전(2004), I.F.A 미술전 참가(중국 곤명, 1999), 광주비엔날레 특별전(2000), 대구미술의 오늘전(2004) 등에 출품했다. 저서로는 『기독교와 미술(공저)』, 『예수 안에서 본 미술(홍성사)』, 논문으로는 '성경적 조형관', '현대기독교 미술과 세계관', '한국 현대 로고시즘(Logos-ism) 미술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